

# “꽃과 함께 온전한 심 누리세요”

## 꽃차 마이스터 양성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온 힘을 다해 피는 꽃을 통해 상대방이 그간 겪은 수고와 노력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김영하 작가는 말했다. 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기와 에너지를 선사하곤 한다. 양성희(69)님은 따뜻한 물을 만나 다시 피어오르는 꽃잎처럼, 우리네 삶 모든 순간이 귀하게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한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 꽃과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

그는 원래 꽃을 취미로만 즐기던 사람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꽃꽂이 모임을 이끌며 성전 꽃꽂이 봉사활동을 해 오던 것이 이제는 그의 삶을 이끄는 주축이 됐다. 꽃차 마이스터, 꽃꽂이사범(1급), 성전 꽃꽂이 강사, 커피 바리스타, 궁중요리 연구가까지 다방면의 재주를 갖추고 있던 그에게 꽃차 마이스터라는 직업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몰랐다. “취미로만 해오던 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소소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고, 바라만 보아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꽃의 에너지를 차라는 매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고민하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네요.”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꽃을 가꾸고 꽃으로 차와 음식을 만들어내며 꽃꽂이와 꽃차 강습을 하는 카페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카페와 공방을 만들어나갔고, 2년 전 드디어 카페 문을 열었다. “저는 이 공간이 단순히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차문화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해요. 일상에 지친 심신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꽃차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좋겠어요.”

### 다시 피어나는 꽃차처럼

그와 꽃차의 인연은 10년 전, 우연히 신문에 난 꽃차 관련 서적을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 꽃꽂이를 오래 해왔던 터라 당시엔 생소했던 꽃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또 다른 취미생활로 삼아보고자 담양에 있는 꽃차문화진흥협회를 찾아갔다. 꽃차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꽃차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가장 오래된 생활문화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셨

다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도 나오며,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무궁화차를 달여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꽃은 모든 영양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맛과 영양분을 갖추고 있어요. 일반적인 꽃은 두고 보다 시들면 그 역할이 끝나지만, 꽃차는 잔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우죠. 따뜻한 물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에요.” 꽃차의 재료는 정원에서 자라는 식용꽃도 일부 사용되지만,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키운 식용꽃을 직접 정성껏 따워서 사용하고 있다. 꽃차를 주문하면 다기세트와 꽃캔디가 나간다. 그의 정성이 색색의 꽃을 만나 트레이 위를 아름답게 수놓는다. 카페 옆 공방에서는 꽃차와 꽃꽂이 수강이 이뤄지며, 일주일에 한 번 외부강의도 나가는 등 그는 꽃차문화 전파를 위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있다. “제가 손수 꾸미고 가꾼 공간에서 잘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성취감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눈으로 꽃을 즐기고, 코로 향을 즐기며, 혀끝을 통해 향이 온몸으로 퍼지는 편안함을 즐긴다.’ 카페 유리문에 쓰인 문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꽃차를 통해 치유와 힐링의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그는 바라고 있다. 



천천히 내려 음미하는 꽃차의 매력